

## Local Social Support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ang Weon Kim<sup>+</sup>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ro, Busanjin-gu, Busan, Korea

### Abstract

Relying upon the recent sociology and political science literature on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theory, this study tested the hypotheses that the areas with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have higher voting rates in election. As voting participation rates vary widely in regions in Korea, the level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provided by local government also varies by their financial and social condition. Using the data collected on 229 regions in Korea, the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was us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on the regional voting rates in electio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structural variables. As expected, the results provided some partial support for direct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voting rates. However, there are no significant direct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voting rates.

**Key words:**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 political participation, voting rates

### 1. 머리말

정치행위는 직접 정치현장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직업 정치인의 역할부터 시작하여 선거에 투표하는 행위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든간에 우리는 정치행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정치적 행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정치행위에 참가하는 정도는 다르다.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평소에는 정치행위에 참여를 하지 않다가 선거 때에는 적극적으로 투표하여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

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마저도 하지 않고, 아예 정치에는 무관심한 사람도 있다.

직업 정치인은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의 정치참여가 필요하고 일반 시민들은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직업 정치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결국 정치행위는 특정 정치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선을 수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수행되는 장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행위가 많을수록 대중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치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치행위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심지어는 정치적 무관심을

<sup>+</sup> Corresponding author: Sang Weon Kim, Tel. +82-51-890-2194, Fax. +82-51-890-2609, e-mail. sangkim@deu.ac.kr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직업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정치하기가 쉽다고 판단하는 일부 직업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행위에 대한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정치가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본인들의 나은 삶을 위한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모든 정치적 행위에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위한 정치행위 참여에 지역의 사회지원 정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지역의 정치적 참여정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구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지역사회의 사회지원과 정치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하며, 나아가 사회자본이 정치적 행위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지원과 정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사회지원 및 사회자본의 정의

사회지원(social support)에 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그 측정방법도 정의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대체로 다양한 자본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사적 혹은 공적 기관을 통해 전체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사회지원을 지원의 주체가 사회연결망, 이웃공동체, 혹은 정부인가, 아니면 배우자, 가족 구성원, 친구와 같은 사적 지원인가에 따라 다르게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지원은 정부의 공식적 사회프로그램, 지역공동체, 사회연결망, 가족, 혹은 사적 관계들을 통해 제공 되어질 수 있는 일체의 인식적(perceived)인 혹은 실질적인 도구적(instrumental) 공급들을 일컫는

다(Chamlin & Cochran, 1997; Cullen, *et. al.*, 1999; Lin, *et. al.*, 1986). 그 밖에 “공동체, 사회연결망, 신뢰하는 파트너 등으로부터 제공 되어지는 인식적, 혹은 도구적 차원의 공급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Lin, *et. al.*, 1986: 18). Cullen과 동료들은 사회지원을 “다양한 형태의 자본의 형태-인적, 문화적, 사회적, 물질적-가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Cullen, *et. al.*, 1999: 190). 그리고 Chamlin & Cochran은 “공동체가 그들의 구성원의 도움과 위안을 위해 희소자원을 기꺼게 주려는 의지”라고 정의하였다(Chamlin & Cochran, 1997: 204).

사회지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대표적 학자인 Cullen은 사회지원을 미시적 지원과 거시적 지원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미시적 지원은 주로 배우자나 가족구성원, 혹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제공 되어질 수 있는 지원을 의미하는 반면에, 거시적 지원은 사회연결망, 이웃과 같은 공동체, 혹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포함한다고 보았다(Cullen, 1994). 이 연구에서는 사회지원을 거시적 지원의 형태인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state support)을 의미하는 개념으로만 사용하려고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이 지역의 사회지원이 지역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지원과 함께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개념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다. 사회자본은 사회지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Bourdieu는 사회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Bourdieu, 2003). 한편 Coleman은 사회자본을 기능에 의해 정의하였다.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행위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때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Coleman, 1990: 304). 따라서 Coleman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단일한 실재(single entity)가 아니라 개인적 그리고 집합적 행위를 조장하는 사회구조의 여러 다른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Coleman, 1990). Coleman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개인에게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관계 속에 묻혀 있는 것이다. 즉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에 내재되어있는 것이다(Coleman, 1990). 그밖에 Lin과 동료들도 사회자본의 다양한 의미들은 결국 사회적 응집력, 연대, 그리고 사회해체와 같은 사회적 개념의 유신들에 중심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Lin, *et. al.*, 2001).

정치학자들은 사회자본을 집합체(예를 들면 마을, 도시, 혹은 국가)의 자산으로 보았다.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Putnam은 사회자본을 “연결망, 규범, 그리고 신뢰와 같이 상호이익을 위한 행위와 협력을 촉진시키는 사회조직의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Putnam, 1993: 35). 실재적인 측면에서 개인 상호 간에 신뢰(interpersonal trust)의 정도와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의 수준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뢰는 사회자본의 대표적 유형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지역적 범위 혹은 전 세계적인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큰 규모의 사회집단에서 사회자본의 효율적인 동원은 사람들이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기꺼이 신뢰하고 협력하는 정도에 달려있다(Brehm & Rahn, 1997). Fukuyama는 이러한 신뢰가 ‘자발적인 사회성(spontaneous sociability)’을 증진시킨다고 보고 이것이 사회자본의 가장 유용한 형태라고 보았다(Fukuyama, 1995).

시민참여는 뚜렷한 목적을 위한 모임에 유용한 조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집합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만들거나 지원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양산한다(Coleman, 1990). 그리고 이러한 신뢰와 시민참여는 상호 보완적인 경향을 띤다. 시민들이 공동체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참여도 많아진다(Brehm & Rahn, 1997).

지역의 사회자본은 지역적 통제와도 관련이 있다. Bursik & Grasmick은 지역적 통제(parochial control)와 공적 통제(public control)를 언급하면서 지역의 사

회조직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정도는 지역적 통제를 강화하고, 그 지역 공동체가 외부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적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지역의 일탈이나 범죄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Bursik & Grasmick, 1993).

Sampson과 동료들의 연구에서 등장하는 ‘집합효율(collective efficacy)’도 사회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범죄율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웃의 사회적, 조직적 성격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집합효율’은 이웃들 간의 상호신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웃의 공동선과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개입하려는 정도를 가리킨다(Sampson, *et. al.*, 1997).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사회자본 개념과 매우 유사하며, 집합효율이 범죄를 줄이는데 작용하는 기제(mechanism)도 사회자본이 지역의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 작동하는 원리와 흡사하다. 둘 다 가족, 사회적 연결망, 공동체를 통해 형성된 인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2) 사회지원 및 사회자본과 정치행위 참여에 관한 기존연구의 검토

정치참여라고 하면 보통 관료나 전문적 정치집단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시민들의 행동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Parry, *et. al.*, 1992). 이렇게 정치참여를 정의할 때 정치참여에 속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치참여를 나타내는 중요한 행위는 투표참여일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투표행위라는 선거참여 정치행위 이외의 비선거참여 형태의 정치참여 행위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치참여 감소의 주요한 원인들 중의 하나는 사회자본의 지속적인 감소에 있다(Putnam, 1995). Putnam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사회에서 나타난 투표를 저하 현상을 사회자본의 감소의 결과로 보았다. Putnam은 개인들이 다른 시민들과 연계망을 형성하고

교류함으로써 시민적 태도의 핵심인 호혜성, 관용, 연대감, 협동심 및 신뢰 등을 획득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시민들의 연계망을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활성화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Putnam, 1995). 따라서 시민적 결사체가 조밀한 사회일수록 정치참여 수준이 높다고 주장했다(Putnam, 1993). 한국에서도 Kim(2007), Park(2003)과 Jang(2002)의 연구에서 비정치적 결사체에 가입하거나 사회참여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정치참여에도 적극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Putnam은 그의 연구에서 강하고(strong), 반응성이 좋고(responsive), 효율적인(effective) 대의 기구를 창출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이탈리아 지역자치 실험에 대한 연구가 바로 이러한 물음에 중요한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동일한 새 제도들이 상이한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여건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는 가를 알아봄으로써 지방정부의 성취도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Putnam, 1993).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다지 길지 않은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각자의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 지역 주민들의 정치참여에 다르게 반응한다고 보다면, 이러한 참여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들이 무엇일 까라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제기일 것이다.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높을수록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정치의 장에서 정책 등으로 구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것은 바로 정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과 직접 연결된다. 지방정부의 사회지원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지역 주민들의 정치참여 정도가 높다고 예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논리적 이유에서 출발한다.

사회자본이 주민들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정책입안 혹은 담당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성을 묻게 됨으로써 사회전체의 정치적 책임성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효과적 작동을 보장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사회자본은 정치참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연결하는 단체 활동이 높은 사람일수록 투표율, 공공이슈에 대한 인식 증가, 정부신뢰 증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본다(Kaufman, 1999).

사회지원이나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정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즉 개인의 사회자본 정도가 개인의 정치참여 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Kim, 2009; Juen & Kang, 2010; Lee & Yu, 2010; Shin & Lee, 2012).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자본이 정치참여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정치행위 참여나 관심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Lee & Yu,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결사체의 참여를 고무시키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정치참여를 북돋우는 영향을 준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이 많은 사회일수록 시민참여를 통한 정부와 시민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민주주의 체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Lee & Yu, 2010).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은 정치에 대한 신뢰와 참여의지와 같은 사회자본을 다시 강화시키고 이렇게 강화된 사회자본은 다시 시민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높이는 과정을 밟게 된다(Paxton, 2002).

지금까지 이러한 개인적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사이의 긍정적 관계에 관한 논의가 많은 한편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의 사회지원이나 사회자본의 정도가 정치행위 참여 정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의 사회지원이나 사회자본 정도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사회지원 혹은 사회자본의 정도와 정치행위 참여 정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이 연구의 기본적인 관심사이다. 지역의 사회지원이나 사회자본 정도와 지역의 여러 사회적 지표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많이 보고되었다(Kim, 2015a, 2015b). 정치적 행위의 참여 정도가 그 지역의 사회적

원 혹은 사회자본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정치참여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의 사회지원이나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를 위한 가설들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지역의 사회지원과 정치행위의 참여와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의 논의에 기초해보면 지방정부의 사회지원이 풍부한 지역일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 연구 가설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회지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정치참여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사회자본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정치참여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사회지원은 사회자본과 독립적으로 그 지역의 정치참여 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의 검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사회지원 및 사회자본과 정치행위 참여 정도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I. 자료와 주요변수의 측정방법

### 1. 자료와 변수들

이 연구는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로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역단위를 분석단위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229개의 시, 군,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집된 자료가 통계청 사회통계국에서 최종집계가 된다.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료가 통계청자료에서 누락된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직접 관할 자치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자료를 얻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교육과 성비변수(2010년 자료)만 제외하고는 모두 2011년이나 2012년 자료들이다. 인구동태학적 자료

는 주로 사회통계국의 전산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기초자치단체별 총 투표율 자료이고, 독립변수는 사회지원, 사회자본 변수를 사용되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차이를 감안해서 종속변수는 2012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2011년 자료를 사용하였다(자세한 측정방법과 출처는 <Table 1>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정치학 문헌에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기타 변수들은 통제변수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교육정도, 인구밀도, 성비, 도시와 농촌, 노인연령구성비 등이 통제변수들로 사용될 것이다.

###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치참여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참여는 여러 가지 형태 가 있을 수 있다. 투표 참여라는 선거참여 형태의 정치참여가 있는 반면에, 정치캠페인 참여나 정당원 활동, 나아가 집회나 시위 참여같은 비선거참여 형태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참여 중에 협소한 의미로 선거참여 형태의 투표참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개인의 정치참여 활동에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투표 참여, 서명운동, 정치토론, 정당 활동, 집회나 시위 참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정치참여 활동 중에서 평균적 참여 수준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볼 때 투표 참여가 시민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참여 유형이다. 그리고 여러 정치참여 행위 중에서 가장 소극적이며 전통적인 형태의 정치참여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표 참여행위를 정치참여의 지표로 선택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개인의 정치참여 정도가 아니라 지역의 정치참여 정도이기 때문에 지역별 투표참여율이 종속변수가 된다. 지역의 사회지원과 사회자본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변수가 그 지역의 투표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얻은 지역별 국회의원선거 참여대상자 중에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하였다(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2).

## 2)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독립변수는 사회지원과 사회 자본이다. 우선 사회지원은 지역별 사회지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른 외국의 기존연구에서 빈번히 사용되어온 대로 2011년도의 지역별 예산에서 교육비에 배정된 비율과 문화비 비율, 그리고 보건비와 사회보장비에 배정된 비율을 사용하였다(Pratt & Godsay, 2002, 2003).

다른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은 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로 구성되어지는데, 여기서는 Coleman의 가족 내 사회자본(social capital in the family)을 주요 사회자본의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Coleman의 경우 사회자본의 형태 중에 사회통제이론 관점에서 가족 내의 사회자본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 가족 내 사회자본을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의 강도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Coleman, 1988). 따라서 여기서는 이혼율을 Coleman의 가족 내 사회자본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혼은 직접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약화를 통해 가정 내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의 결핍을 낳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역의 이혼율은 그 지역의 가족 내 사회자본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혼에 의한 가족의 해체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수준을 감소시키고 사회자본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2012년의 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을 사용하였다(Statistics Korea, 2013b).

## 3) 통제변수

일반적으로 투표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교육정도가 투표참여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연구에 따라 교육정도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육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인구 10만 명당 4년제 미만과 4년제 대학의 재학생 수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매년 수집하는 자료가 아니라 인구 총 조사에서 수집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2011년 자료는 없으며, 종속변수자료인

2012년에 가장 가까운 자료가 2010년 인구 총 조사 때 수집된 자료이다. 따라서 2010년의 인구 10만 명당 4년제 미만 및 4년제 대학에 등록된 재학생 수로 변수를 측정하였다(Statistics Korea, 2011).

그 외에 지 인구밀도와 성비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지역의 인구밀도는 인구과밀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통계학적 지표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주택부족, 주택의 질적 저하,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기능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밀도를 '지역의 면적 1 제곱킬로미터 당 거주인구 수'로 측정하였다(Statistics Korea, 2013a).

성별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역별 성비를 사용하였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여자 인구수에 대한 남자 인구수의 비율(백분율)'로 측정하였다(Statistics Korea, 2011).

도시와 농촌의 지역변수도 투표참여라는 정치행위에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구는 도시로 규정하고 군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가변수로 처리하여 도시와 농촌 사이의 투표참여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Statistics Korea, 2013a).

연령과 투표행위 사이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정치학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아진다고 본다. 여기서는 지역별 노인연령구성비를 통해 지역의 노인인구와 투표참여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하였다(Statistics Korea, 2013a).

## 2.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연구 목적을 위해 사회지원과 사회자본이라는 독립변수가 기타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투표참여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우선 독립변수 값들의 분포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방향, 강도, 선형성(linearity)을 점검하기 위해 탐색적 자료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을

Table 1. Descriptions and sources of the variables

Variable	Description	Source
Regional voting rates	Proportion of registered voters who voted in 2012 parliamentary election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ducation W	Proportion of the regional budget spent on education	Finance Yearbook
Culture W	Proportion of the regional budget spent on culture	Finance Yearbook
Health W	Proportion of the regional budget spent on health	Finance Yearbook
Social welfare W	Proportion of the regional budget spent on social welfare	Statistics Korea
Divorce rates	Divorce number per 1,000 residents	Statistics Korea
Education	Rate per 100,000 people enrolled in college and university	Statistics Korea
Density	Population number per 1 square Km	Statistics Korea
Sex ratio	Male population/female population $\times$ 100(%)	Statistics Korea
Urban	Urban/rural distinction	Statistics Korea
Elder	the elder population/total population $\times$ 100(%)	Statistics Korea

시도해 보았다(Turkey, 1977; Hartwig & Dearing, 1979). 산포도(scatterplots)를 통해 선형성과 방향성을 검사해 보았고, 잎과 줄기 도형(stem and leaf diagram), 네모꼴-수염식 도형(box and whisker diagram)을 통해 비대칭적 분포의 정도와 이상점으로 인한 문제점의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모델측정을 왜곡할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모델의 안정성과 민감성 테스트를 위해 회귀 진단법(regression diagnostics)을 사용해 보았다(Berry, 1993; Fox, 1991). 그 결과는 사용된 자료는 OLS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었다. 산포도는 선형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잔차의 이분산성의 존재여부도 확인하였으나 문제가 없었다. 분산팽창계수의 값을 확인할 결과, 다중공선성은 이 분석모델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세 가지 측정 모델이 구성되었으며, 모델 측정을 위해 Ordinary Least Squares (OLS)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독립 변수를 제외한 통제변수만을 가지고 분석한 모델이다. 두 번째 모델은 사회지원과 주요 통제변수를 모델에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것이다. 세 번째 모델은 사회지원의 정도가 그 지역의 사회자본의 정도와 독립적으로 그 지역의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줄 것인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사회지원과 사회자본을

모델에 함께 포함시켜서 분석해 본 것이다. 만약 지방정부의 사회지원의 정도가 그 지역의 사회자본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그 지역의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준다면 사회자본 변수를 모델측정에 포함시켰을 경우에도 여전히 투표참여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Table 1>에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측정방법과 출처를 요약해 놓았다.

#### IV. 분석결과

<Table 2>는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인 2012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 총 투표율은 평균 55.99% 정도로, 유권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상은 투표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투표율의 표준편차는 5%를 조금 넘었다. 지역의 전체 예산액 중에서 교육비와 문화비에 배정되는 비율은 둘 다 1.5%정도였다. 보건비에 배정되는 비율은 평균 2%정도이고, 사회보장비에 배정되는 비율은 평균 26%정도였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평균 이혼 건수는 평균 1천 명당 2.21건에 해당되었다. 2012년 지역의 평균 노인연령구성비율은 17% 정도로 나타났다.

이변량 상관분석에서 우선 사회지원과 투표참여율 사이의 관계를 보면 예상과 달리, 교육비( $r = -.252$ ), 문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matrix

	(1)	(2)	(3)	(4)	(5)	(6)	(7)	(8)	(9)	(10)	(11)
(1) Voting rates	1.000										
(2) Education W	-.252	1.000									
(3) Culture W	-.308	.841	1.000								
(4) Health W	.010	.027	.002	1.000							
(5) Social welfare W	-.426	.117	.118	.365	1.000						
(6) Divorce rates	-.400	.130	.168	-.200	.026	1.000					
(7) Education	-.379	.150	.146	.152	.521	-.046	1.000				
(8) Density	-.226	.283	.285	.323	.669	-.041	.340	1.000			
(9) Sex ratio	-.408	.171	.203	.007	.086	.470	.207	-.027	1.000		
(10) Urban	-.478	.326	.290	.120	.636	.174	.580	.447	.311	1.000	
(11) Elder	.639	-.449	-.440	-.144	-.647	-.265	.553	-.450	-.589	-.787	1.000
Mean	55.99	1.51	1.50	2.02	26.45	2.21	4015	4031	97.74	0.66	16.68
Standard dev.	5.10	1.25	1.11	0.60	13.16	0.38	2255	6408	6.31	0.48	7.53

화비( $r=-.308$ ), 사회보장비( $r=-.426$ )는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보건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r=.010$ ). 사회자본의 측정지표인 이혼율은 투표율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400$ ).

통계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학력은 투표참여율( $r=-.379$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학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밀도는 투표참여율( $r=-.226$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성비도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408$ ). 남성이 많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와 투표율 사이의 관계서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478$ ). 도시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노인연령구 성비와 투표참여율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r=.639$ ).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은 사회지원과 사회자본이 투표참여율에

Table 3. The voting rates regressed on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N=229)

Variable	Model1		Model2		Model3	
	b(β)	p-value	b(β)	p-value	b(β)	p-value
Intercept	49.126	<.000	53.402	<.000	49.155	<.000
Education W			.543 (.133)	.175	.531 (.130)	.162
Culture W			-.881 (-.192)	.046	-.718 (-.156)	.088
Health W			1.042 (.122)	.029	.490 (.058)	.293
Social welfare W			-.078 (-.202)	.042	-.055 (-.142)	.136
Divorce rates					-3.870 (-.287)	<.000
Education	.000 (-.061)	.341	.000 (-.056)	.390	.000 (-.122)	.054
Density	.000057 (.072)	.255	.000092 (.115)	.113	.000084 (.105)	.128
Sex ratio	-.010 (-.012)	.866	-.039 (-.048)	.536	.090 (.111)	.168
Urban	.701 (.066)	.467	.970 (.091)	.316	1.543 (.144)	.097
Elder	.461 (.682)	<.000	.382 (.566)	<.000	.425 (.630)	<.000
Adjusted R <sup>2</sup>	.403		.424		.480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모델측정의 결과들을 보여준다. 모델 1은 사회지원이나 사회자본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통제변수만을 넣어 측정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노인연령구성비만이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beta=.682, p<.001$ ). 노인연령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투표참여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모델 2에서는 다른 변수들은 그대로 놔둔 채, 사회지원 변수들을 모델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는 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지원 변수들은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문화비는 투표참여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beta=-.192, p=.046$ ). 사회보장비도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beta=-.202, p=.042$ ). 이는 지방정부 예산 비율 중에 문화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사회보장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비( $\beta=.122, p=.029$ )는 반대로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보건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론해보면, 예산에서 보건비가 높은 지역은 대체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미 모델측정에서 나타났듯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투표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통제변수 중에는 모델 1에서처럼 노인연령인구구성비만이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beta=.566, p<.001$ ).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서 사용한 변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자본 변수를 추가하였다. 분석결과는 이혼율이라는 사회자본 변수가 투표참여율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나타났다( $\beta=-.287, p<.001$ ). 이는 이혼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두 번째 연구가설을

통해 예측했던 것과는 비슷한 결과이다. 가족 내 사회자본이 많은 지역일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회지원 변수는 모델 2에서 보여준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정(+)적 이든 부(-)적이든 간에 문화비, 보건비, 사회보장비는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 모델 2에서와는 달리, 모델 3에서는 사회지원 변수들과 투표참여율 사이에 존재했던 유의미한 관계들이 사라지고, 사회지원 변수들은 투표참여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자본 변수인 오직 이혼율만이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통제변수들과 투표참여율 사이의 관계는 모델 1과 모델 2에서의 분석결과와 비슷하게 노인연령인구구성비가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beta=.630, p<.001$ ). 앞의 두 모델과 다른 점은 모델 3에서는 통제변수들 중에 새롭게 교육정도( $\beta=-.122, p=.054$ )가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라는 것이다. 교육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지원 변수들과 투표참여율 사이에 존재했던 유의미한 관계들이 사라진 것은 사회지원은 사회자본과 독립적으로 그 지역의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세 번째 연구가설은 지지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모델 3의 측정 결과는 사회지원 변수들은 사회자본 변수인 가족 내 사회자본이 개입하게 되면서 모델 2에서 보여준 투표참여율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사라지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지원은 사회자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V. 토론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회지원과 사회자본이 그 지역의 투표참여라는 정치행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사회지원 개념을 거시적 지원

형태인 공적인 정부지원(state support)으로 한정하였다. 결국 이 연구의 사회지원은 Cullen(1994)의 '사회적 지원은 국가나 사회적 기제(mechanism)를 통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 기초를 두고 Pratt & Godsey(2002, 2003)가 사용한 측정을 이용하여 사회지원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여기서의 사회자본 개념은 주로 Coleman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Coleman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개념(Coleman, 1988)을 활용하여 한국의 지역단위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첫 번째 연구 가설은 사회지원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연구결과는 사회지원 변수들 중에 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지원 변수들은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상과 달리, 문화비와 사회보장비는 투표참여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방정부 예산 비율 중에 문화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리고 사회보장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건비는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보건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서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예산에서 보건비가 높은 지역은 대체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일 가능성이 높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은 투표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리적 연결고리에 따라 보건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자본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이혼율이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가족 내 사회자본이 많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가설에서 예상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지원은 사회자본과 독립적

으로 그 지역의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사회지원 변수와 사회자본 변수를 함께 분석모델에 넣고 모델측정을 한 결과, 사회지원변수는 사회자본과 독립적으로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지원 변수는 다른 가설검정을 위한 측정모델에서 보여준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문화비, 보건비, 사회보장비는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준 다른 측정모델에서와는 달리, 최종 측정모델에서는 사회지원 변수들과 투표참여율 사이에 존재했던 유의미한 관계들이 사라지고, 사회지원 변수들은 투표참여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변수인 오직 이혼율만이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서 노인연령인구구성비는 모든 모델에 거쳐 지속적으로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노인연령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델 3에서는 교육정도가 투표참여율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교육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낮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지원과 사회자본이 대표적인 정치행위인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보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물리적 형태의 사회지원보다는 지역공동체의 가족 내 사회자본과 같은 지역의 사회연결망 중심의 사회자본의 정도가 정치행위인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진단을 조심스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지원 변수들과 투표참여율 사이에 존재했던 유의미한 관계들이 최종 측정모델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사회지원은 사회자본과 독립적으로 그 지역의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최종 측정모델에서의 분석결과는 사회지원 변수들은 사회자본 변수인 가족 내 사회자본이 개입하게 되면서 사회지원변수만 추가된 모델

에서 보여준 투표참여율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사라지는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지원은 사회자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의 사회지원과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의 정도, 특히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사회지원과 사회자본 변수들이 투표참여에 미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일부 사회지원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예상과는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지방정부의 사회지원이 아직까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기초자치단체가 예산편성에서 사회지원의 정도를 더 높이고 지역의 사회자본을 강화한다면 지역공동체가 자신들의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적 행위의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702270001).

## References

- Berry, W. D. 1993. *Understanding Regression*. Newbury Park, CA: Sage.
- Brehm, J. and W.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999-1023.
- Bursick, R. J. and H. G. Grasmick.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New York: Lexington Books.
- Chamlin, M. B. and J. K. Cochran. 1997. Social Altruism and Crime. *Criminology*. 35: 203-228.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 95-120.
- Coleman, J. 1990. *The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ullen, F. T. 1994. Social Support as an Organizing Conception for Criminology: Presidential Address to the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Justice Quarterly*. 11: 527-559.
- Cullen, F. T., J. P. Wright, and M. B. Chamlin. 1999. Social Support and Social Reform: A Progressive Crime Control Agenda. *Crime and Delinquency*. 45: 188-207.
- Fox, J. 1991. *Regression Diagnostics: An Introduction*(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 Series no. 07-079). Newbury Park, CA: Sage.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Hartwig, F. and B. E. Dearing. 1979. *Exploratory Data Analysis*. Newbury Park, CA: Sage.
- Jang, Soo Chan. 2002. The Presence of the Vicious Cycle among Civic Engagement, Social Capital, and 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in South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6(1): 87-112.
- Juen, Young Ah and Jeong Han Kang. 2010. The Effects of Various Types of Social Capital on Political Discussion in Online Communities: The Case of Candlelight Vigil.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7(3): 177-226.
- Kaufman, J. 1999. Three Views of Associationalism in the 19th-century American: An Empirical Examin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5): 1296-1345.
- Kim, Dong Yoon. 2009. An Exploratory Approach on the Conceptualiza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9(4): 38-64.
- Kim, Sang Don. 2007. Comparative Analysis among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the Causal Structure of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1): 221-255.
- Kim, Sang Weon. 2015b.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Elderly Suicide Rates.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1(11): 37-54.
- Kim, Sang Weon. 2015a.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Elderly's Mortality Rates.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1(6): 137-152.
- Lee, Sook Jong and Hi Jeong Yu. 2010.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4(4): 287-313.
- Lin, N., A. Dean, and W. Ensel. 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 and Depression*. Orlando, FL: Academic Press.
- Lin, N., K. Cook, and R. S. Burt. 2001.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Park, Cong Min. 2003.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Group Membership, Social Trust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Korea.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9(1): 120-153.
- Parry, G., G. Moyer, and N. Day. 199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Britai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xton, P. 2002.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dependent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54-277.
- Pratt, T. C. and T. W. Godsey. 2002. Social Support and Homicide: A Cross-national Test of an Emerging Criminological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6): 589-601.
- Pratt, T. C. and T. W. Godsey. 2003. Social Support, Inequality, and Homicide: A Cross-national Test of an Integrated Theoretical Model. *Criminology*. 41(3): 611-643.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Republic of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2. *2012 Parliamentary Election Turnout Analysis*.
- Sampson, R. J., S. W. Raudenbush, and F. Earls.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hin, So Youn and Sang Woo Lee. 2012.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Focusing on Twitter & Facebook Users'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9(4): 191-232.
- Statistics Korea. 2011. *2011 Census*. Seoul: Statistics Korea.
- Statistics Korea. 2013a. *2013 Census*. Seoul: Statistics Korea.
- Statistics Korea. 2013b. *Population Trends Survey*. Seoul: Statistics Korea.
- Tukey, J. W. 1977. *Exploratory Data Analysis*.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동윤. 2009. 사회자본의 개념화에 대한 탐색적 접근: 정치 속의 및 시민적 자질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4): 38-64.
- 김상돈. 2007. 정치참여의 인과구조에 대한 한, 미, 일 국제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41(1): 221-256.
- 김상원. 2015a. 사회적 자본이 노인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위기관리논집*. 11(6): 137-152.
- 김상원. 2015b. 사회자본이 노인의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 위기관리논집*. 11(11): 37-54.
- 박종민. 2003. 사회자본과 민주주의: 집단가입, 사회신뢰 및 민주시민성을 중심으로. *정부학 연구*. 9(1): 120-153.
- 부르디외(Pierre Bourdieu), 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공편역.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 신소연, 이상우. 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자본 유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4): 191-232.
- 이숙중, 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1): 87-112.
- 전영아, 강정한. 2010.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유형별 사회자본이 정치적 의견표명과 호응에 미치는 효과: 광우병 촛불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3): 177-22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012.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1. 2011 인구 총 조사. 서울: 통계청.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3a. 2013 인구 총 조사. 서울: 통계청.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13b. 인구동향조사. 서울: 통계청.

Received: Aug. 30, 2017 / Revised: Sep. 12, 2017 / Accepted: Sep. 14, 2017

## 지역의 사회지원과 정치참여

국문초록 정치행위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선을 수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수행되는 장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정치적 행위가 많을수록 대중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개인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위한 정치행위 참여에 지역의 사회지원 정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지역의 정치적 참여정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구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n=229)를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지원과 사회자본이 정치행위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사회지원은 사회자본과 독립적으로 그 지역의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이런 결과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물리적 형태의 사회지원보다는 지역공동체의 가족 내 사회자본과 같은 지역의 사회연결망 중심의 사회자본의 정도가 정치행위인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제어 : 사회지원, 사회자본, 정치참여, 투표참여율

---

Profiles **Sang Weon Kim** : He received his Ph.D. from University of Oklahoma, U.S.A. in 2003.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t Dong Eui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05.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criminological theory, crime preven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He has worked as a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at Harvard University in 2004, and also has worked as a research associate at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 in 2004(sangkim@deu.ac.kr).